

전북대, 지역 청소년과 함께 동아리페스티벌 개최

5일까지 구정문 앞 알림의 거리 일일서
청소년 동아리 110개 참여
문화와 예술의 장 제공 등 행사 다채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구정문 알림의 거리 일일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예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북대 90여개 중앙동아리와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20여 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생 및 청소년 동아리들이 각각의 끼를 보여주는 경연대회와 각종 축하공연, 체험부스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는 2일과 3일 오후 7시 메인 무대에서 열린다. 1일차 노래 가왕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2일차에는 댄스왕 선발대회가 열린다.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수상자에게는 대상에 각각 50만원을 비롯해 상금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동아리별 토크콘서트도 진행되고, 동



전북대학교는 2일부터 5일까지 구정문 알림의 거리 일일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아리 부스별로 각각의 특성을 알리는 행사도 중일 진행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취약 계층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균형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 생활과 문화·예술 등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의료원 나누리봉사단,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

남원의료원 나누리봉사단은 지난달 30일 관내 지역 사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 전달 및 말벗 봉사를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고자 추진되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고 정성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전주 로타리클럽,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이종상)은 지구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이웃의 사람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근 전북동 소재 한 1급 장애가구에 그동안 제대로 씻을 공간이 없어 위생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쪽에 공간을 마련하여 욕실 공사를 마치고, 통영바다 자매클럽, 최영실 전북동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부 도연순 자부장, 김형선 동내복지팀장, 본 서전주클럽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보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종상 회장은 "주말에 지구보조금 전달식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통영바다 자매클럽, 최영실 전북동장님을 비롯한 내빈들께 감사하고, 또 공사를 위해 여러 날 바쁜 시간내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주신 회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며, "앞으로 2~3가구 더 집 고쳐주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지구보조금 사업은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로타리재단에 기부한 기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사업비로 지역사회 소외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인도주의 봉사 활동이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태권도 명예 5단증' 수여 받아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이 지난 1일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지역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개최에서 '태권도 명예 5단증'을 수여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태권도 명예단증은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태권도의 진흥 및 위상 강화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명예단 수여자격 심사기준에 의해 1단~9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승열 의장은 태권도원이 무주에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무주가 태권도의 고장임을 인식시킬 수 있게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 육성을 통해 해외 홍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2017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심 민 임실군수, 애국펀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동참

심 민 임실군수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디딤돌이 되기 위한 이른바 '애국펀드'인 NH-Amundi 필승코리아 펀드를 가입했다. 심 군수는 농협은행 임실군청지점을 방문하여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시작된 한일간의 경제적 환경여건을 국민 스스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농협은행 임실군청 지점은 심 군수를 필두로 공직자들과 주민들로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펀드 마케팅에 돌입할 예정이다. NH-Amundi 필승코리아 펀드는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 및 투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등에 집중투자할 전망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선관위, 진로직업체험교실 운영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하늘중 1학년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직업체험교실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전반적인 업무소개 ▲영화를 통해 살펴보는 투표의 의미와 모의반장 투표체험이 진행되었다.



남원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체험교실이 학생들의 꿈과 목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9월 추석대비 안전점검 실시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추모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묘역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윤명석 원장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묘역환경 개선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부모님 섬김처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묘역 잔디깎기 등 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사 및 시설물 등 관리상태 점검과 청사 내의 전기설비 점검 및 수리, 정전 사태에 대비한 준비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보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02-0965	정읍지사 538-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요지지사 010-884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